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교과서의 ‘음운 변동’ 기술 양상과 문제점

—설명에 제시된 예시 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진 홍익대학교

- * 이 논문은 제58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15년 4월 12일)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 I. 서론
- II. 교과서의 '음운 변동' 유형 검토
- III. '음운 변동' 예시 자료 검토
- IV. 결론

I. 서론

본고는 현행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음운의 변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각 출판사별로 제시된 예시 자료와 그에 따른 설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 검토하는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¹

- ㄱ. 박영목 외 5인(2012), 『독서와 문법 I』, 천재교육.
- ㄴ. 윤여탁 외 8인(2012), 『독서와 문법 I』, 미래엔.
- ㄷ. 이남호 외 9인(2012), 『독서와 문법 I』, 비상교육.
- ㄹ. 이삼형 외 8인(2012), 『독서와 문법 I』, 지학사.

1 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독서와 문법 I』 교과서 6종을 모두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전의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4종을 본고에서 우선 검토하고 차후에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겠다. 이후 출판사명 지칭 시 <지학사>는 <지>, <천재교육>은 <천>, <비상교육>은 <비>, <미래엔>은 <미>로 표시한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교과서의 음운 교육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신지영(2006)은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의 ‘말소리’ 부분을 대상으로 20가지 문제점을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신호철(2008)은 4차~7차 교육과정의 <문법>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말소리’ 단원의 용어, 내용, 구성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상신(2009)은 학교문법의 ‘축약’을 대상으로 서술상의 문제점과 그 대안 등을 어문 규정과 관련하여 논의하였고, 이진호(2009)는 음운 교육 내용의 시대별 변천과정을 상세히 살피고, 음운 교육과 표준 발음의 관계, 현행 문법 교과서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김봉국(2014)은 <독서와 문법> 교과서 속의 음운 변동 내용의 체계상의 문제, 내용상의 문제, 용어상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교과서에서 다룰 만한 음운 현상을 제시하였다. 이 논의들의 초점은 대체로 교과서의 체계와 용어 사용 문제에 맞춰진 경우가 많았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주목하게 되는 음운 현상의 예시 자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현행 문법 교과서들은 현대국어에 초점을 맞춰 공식적인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예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유형이 다소 부족하며 간혹 음운 현상이 적용되는 환경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에 대한 다양한 설명과 자료들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음운의 변동을 이해의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단편적인 자료를 통한 암기 위주의 학습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어의 다양한 음운 현상 중 어떠한 것은 모든 환경에서도 예외 없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지만 어떠한 것은 특수한 환경에서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학생들은 단순 암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음운 현상이 적용되는 환경을 정확히 기술하고, 그에 따른 다양하고 적절한 예시 자료를 함께 보여 줘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각 출판사별로 제시된 음운 현상의 예시 자료 및 설명 방식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밝힐 것이다.

II. 교과서의 ‘음운 변동’ 유형 검토

본 장에서는 음운 변동의 예시 자료 및 설명 제시를 살피기에 앞서 교과서별로 제시된 음운 변동이 각각 어떠한 유형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다. 이후 본고의 관점에 따라 음운 변동의 유형을 재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음 장에서 예시와 설명의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음소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음소로 바뀌거나(대치), 없어지거나(탈락), 없던 음소가 새로 끼어들거나(첨가), 두 음소가 합쳐져 하나의 음소로 바뀌거나(축약), 두 음소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도치) 등 변동을 겪는데 이러한 음소의 변동을 음운 현상이라 한다.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교과서에 제시된 음운 현상의 유형은 국어 음운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되던 분류 방식과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 각 출판사별로 제시한 음운 현상의 유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교과서별 음운 변동 유형과 음운 현상

유형	음운 현상	지학사	천재교육	비상교육	미래엔
대치 /교체	음절의 끝소리규칙	●	●	●	●
	비음화	●	●	●	●
	유음화	●	●	●	●
	구개음화	●	●	●	●
	된소리되기			●	●
	ㄴ 모음 역행동화	●		●	
	두음법칙		●		
첨가	ㄴ 첨가			●	●
	반모음첨가				●
	사잇소리 현상	●	●		
탈락	자음군 단순화	●	●	㉠	●
	ㅎ 탈락	●	●	●	●

탈락	ㄹ 탈락	●	●	●	Δ^3
	ㅡ 탈락	●			●
	ㅅ 탈락	●			Δ
축약	거센소리되기	●	●	●	●
	모음축약				●
	음절축약	●	●		

먼저 음운 현상의 용어를 살펴보면, ‘첨가, 탈락, 축약’의 분류는 4개의 교과서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대치’의 경우 <천>은 ‘교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지>는 ‘교체’와 ‘동화’라는 두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천>의 경우는 용어의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개념상의 차이는 없다. 하지만 <지>의 경우 음절 말 끝소리 되기를 ‘교체’로, 나머지 현상들을 ‘동화’의 유형으로 각각 나누어 분류했는데, ‘동화’는 대치에 포함되는 개념이지 분리되는 개념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다음으로 각 유형에 포함되는 음운 현상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천>에서는 ‘두음 법칙’을 ‘대치’, ‘사잇소리 현상’을 ‘첨가’, ‘음절축약’을 ‘축약’에 포함하였고, <지>는 ‘사잇소리 현상’을 ‘첨가’로, ‘ㅅ 탈락’을 ‘탈락’으로 ‘음절축약’을 ‘축약’에 포함하여 음운 현상을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 네 가지 현상들을 음운의 변동 유형에 포함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기타 유형으로 정리하겠다. 이 현상들은 음운론적인 환경에 의한 변동이 아니라 개별음소의 발음 규칙 또는 불규칙 활용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의 관점을 바탕으로 교과서별 음운 변동 유형에 따라 제시된 음운 현상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2 <비>에서는 본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직접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음운의 변동 유형을 설명하면서 ‘ $AB \Rightarrow A \text{ or } B$ ’라는 설명과 함께 ‘삶 → [삼]’을 제시하고 있다.
- 3 ‘음운의 변동과 표기 및 발음’ 부분에 ‘ㄹ 탈락’, ‘ㅅ 탈락’, ‘ㄱ 탈락’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음운의 변동 유형과 음운 현상

유형	음운 현상	지학사	천재교육	비상교육	미래엔
대치	음절의 끝소리규칙	○	○	○	○
	비음화	○	○	○	○
	유음화	○	○	○	○
	구개음화	○	○	○	○
	경음화			○	○
	ㅣ 모음 역행동화	○		○	
첨가	ㄴ 첨가			○	○
	반모음첨가				○
탈락	자음군 단순화	○	○	○	○
	ㅎ 탈락	○	○	○	○
	ㄹ 탈락	○	○	○	○
	ㅡ 탈락	○			○
축약	거센소리되기	○	○	○	○
	모음축약				○
기타	두음법칙		○		
	사잇소리 현상	○	○		
	음절축약	○	○		
	ㅅ 탈락	○			○

III. ‘음운 변동’ 예시 자료 검토

음운 변동은 크게 변동을 겪는 음소(입력부), 변동의 결과(출력부), 변동의 환경이라는 세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를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다.

(2) A → B / C ___ D

A는 입력부로서 변동을 겪는 입력부의 음소이고, B는 변동을 겪은 후 나타나는 출력부의 음소이며 C__D는 변동이 일어나는 환경이다. 예를 들어 유음 탈락은 어간 말음 ‘ㄹ’이 ‘ㄴ, ㅅ’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인데 이를 간단히 규칙화하면 ‘ㄹ→∅ / __ㄴ, ㅅ, ㅈ’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이 유음 탈락 현상은 ‘합성어나 파생어를 형성할 때나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될 때’라는 형태론적인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⁴

(3)

ㄱ. 합성어: 버드나무(버들+나무), 소나무(솔+나무)

ㄴ. 파생어: 따님(딸+님), 바느질(바늘+질)

ㄷ. 용언: 우는(울+는), 아느냐(알+느냐), 아신다(알+으신다→알신다)

ㄹ. 한자어 합성어: *부신(불신), *고수(골수)

(3)은 음운 변동의 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제시한 유음 탈락 현상의 예시 자료이다. 이처럼 음운 현상은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교과서의 예시 자료들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와 같은 환경들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각 교과서에서 확인되는 예시 자료의 제시와 설명 방식의 문제점들을 음운 변동의 유형에 따라 좀 더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4 유음 탈락 현상에는 통시적인 문제와 예외적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중세국어에서 유음 탈락은 현대국어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자음 앞에서 일어났고(울 + 더니 → 우더니), 동일한 환경이지만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유음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별 + 님 → 별님, 줄 + 님기 → 줄님기).

1. 대치

1) 음절의 끝소리 되기

음절 말 끝소리 되기 현상은 국어의 음절 말에 올 수 없는 장애음이 모두 평파열음으로 대치되는 음운 현상이다. 음절의 끝소리 되기 현상은 4개 교과서에 모두 다루고 있으며 제시된 예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ㄱ. <지>: 꽃, 박, 갓, 낫/낫/낫/낫, 옷, 부엌, 술, 무릎

ㄴ. <천>: 잎, 옷, 부엌, 끝, 옷, 박

ㄷ. <비>: 밭, 옷, 몹

ㄹ. <미>: 꽃, 갓/갓도, 잎/잎도, 박/박도

먼저 <비>의 경우 명사 3개만을 제시하고 있어 예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몹’의 경우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비>에서는 ‘몹’을 겹받침 ‘ㄱㅅ’이 ‘ㄱ’으로 바뀐 표면형에 초점을 두어 음절의 끝소리 되기 현상의 예로 제시한 것 같으나, 일반적으로 ‘몹’은 음소가 환경에 따라 다른 음소로 바뀐 ‘대치’가 아니라 음소가 없어진 ‘탈락’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음절 말 겹받침에서 ‘ㅅ’이 탈락하고 ‘ㄱ’만이 남는 자음군 단순화이다.

한편 <지>는 음절 말에서 ‘ㄱ, ㄷ, ㅂ’으로 대치되는 모든 자음의 예시 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역시 명사만을 다루고 있다.⁵ <천>은 양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비>, <지>와 제시 양상이 거의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미>

5 엄밀히 말하면 ‘ㅎ’ 종성 말음의 예는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ㅎ’ 종성의 경우 뒤에 ‘ㄱ, ㄷ, ㅂ, ㅅ’가 올 경우 유기음화가 일어나고 ‘ㄴ, ㅅ’이 올 경우에만 ‘ㄷ’으로 음절 말 평파열음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학교문법에서 제시하여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

에 제시된 예시 자료를 살펴보면, 다른 교과서와는 달리 명사에 조사가 결합된 곡용의 예가 제시되어 있다. 음절 말 끝소리 되기 현상은 음절 구조 제약 중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종류를 제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모음의 연쇄 환경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명사 단독 형태(웃)이든 곡용 형태(웃도)이든 활용(웃다)이든 다 적용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미>에 제시된 곡용의 예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음절 끝소리 되기 현상에 적용되는 받침 자음에서 ‘ㅍ’이 명사형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갔다’와 같이 용언 어간에만 존재하므로 모든 예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곡용과 활용형을 같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비음화

비음화 현상은 평파열음 ‘ㅂ, ㄷ, ㄱ’가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대체되는 현상이다. 비음화 현상은 4개 교과에서 모두 다루고 있으며 제시된 예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ㄱ. <지>: 닫는다, 잡는다, 먹는다, 꽃만, 웃는다

ㄴ. <천>: 국물, 닫는, 잡는, 얻는, 앞문, 값만

ㄷ. <비>: 앞마당, 밥만, 부엌문, 갓난애, 직면, 밥물, 읊내, 국물, 속내, 만물, 눈내

ㄹ. <미>: 먹는, 국물, 꽃만, 걷는다, 밥물, 국물, 깎는, 키웁만, 책 넣는다, 흙 말리다, 국민

<지>는 용언 어간에 현재형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이 결합되어 비음화가 일어나는 활용형 예시 자료(닫는다, 잡는다, 먹는다, 웃는다) 4개를 제시하고 있고,⁶ <천>은 명사(국물, 앞문)와 활용형(닫는, 잡는, 얻는), 곡용형(값만)

6 물론 ‘음운의 변동’ 도입부 설명부분에 체언에 조사가 결합되어 비음화가 일어나는 ‘꽃만

등의 예시 자료 6개를 제시하고 있다.⁷ <비>는 명사형(앞마당, 부엌문, 갓난애, 직면, 밥물, 읍내, 국물, 속내, 만물, 눈내)와 곡용형(밭만, 활용형(있는) 등의 예시 자료 12개를 제시하고 있다.⁸ <미>는 가장 다양한 환경의 예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명사형(국물, 밥물), 곡용형(꽃만, 키웁만), 활용형(먹는, 걷는다, 깎는), 어절(책 넣는다, 흙 말리다) 등의 예시 자료 9개를 제시하고 있다.⁹ <미>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어절 경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음화의 현상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4개의 교과서에서는 ‘능력[능녀], 담력[담녀]’이나 ‘협력[협녀], 합리[합니], 학력[향녀]’¹⁰과 같이 ‘ㄹ’이 ‘ㄴ’으로 바뀌어 비음화가 실현되는 예는 모두 다루지 않고 있다.¹¹ 학교문법에서 이 두 현상을 별개로 다루는 것이 학습 부담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ㄹ’이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 역시 필수적인 현상이므로 두 현상을 분리하든 하나의 현상으로 묶든 반드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¹²

3) 유음화

유음화는 ‘ㄹ’과 결합하는 ‘ㄴ’이 ‘ㄹ’로 대체되는 현상이다. 유음화 역시

[꼰만]도 제시되어 있다. ‘웃는다’의 경우는 연습문제에 제시되어 있다.

- 7 곡용형 ‘값만[갑만]’은 연습문제에 제시되어 있다.
- 8 곡용형 ‘밭만[반만]’은 도입부 설명 부분에, 활용형 ‘있는[인는]’은 연습문제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명사형 예시도 ‘앞마당[암마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연습문제에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 9 ‘책 넣는다[챙년는다], 흙 말리다[홍말리다]’는 ‘음운 변동과 발음 및 표기’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 10 하호빈(2008)은 이와 같은 음운 현상들을 동화주의 유무와 상관없이 공명도 조정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 11 이진호(2005)는 평파열음 ‘ㅂ, ㄷ, ㄱ’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을 ‘비음 동화’로,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 ‘ㄹ’이 올 때 ‘ㄹ’이 ‘ㄴ’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을 ‘비음화’로 규정하고 있다.
- 12 <비>에서 모둠활동 부분에 한 단어에 두 번 이상의 음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며 ‘없는, 잃는, 날말, 격론[경논]’을 제시하고 있다. 역행, 순행, 상호 동화로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4개 교과서에 모두 다루고 있으며 제시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ㄱ. <지>: 권력, 달님, 신라

ㄴ. <천>: 물난리, 신라, 칼날, 설날, 논리, 활는

ㄷ. <비>: 과일나무, 신라, 실내

ㄹ. <미>: 설날, 권력

유음화의 예시 자료는 4개 교과서 모두 순행과 역행의 예를 한두 개씩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¹³ 순행적 유음화의 경우 모두 복합어(달님, 물난리, 칼날, 설날, 과일나무)를 예시 자료로 제시하고 있고 역행적 유음화는 한자어(권력, 신라, 논리)를 예시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유일하게 <비>의 경우 순행적 유음화에 한자어(실내) 자료를 제시하고, <천>의 경우 용언에 어미가 붙는 활용형(활는[활른])을 제시하고 있다.¹⁴

유음화는 크게 동화주의 위치에 따라서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두 현상은 변동의 결과(출력부)는 같지만 성격이 매우 다른 현상이다. 즉, 순행적 유음화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일어나지만 역행적 유음화는 단어 내부에서만 적용된다. 또 역행적 유음화는 단어에 따라서 비음화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순행적 유음화는 그렇지 않다.¹⁵ 그러므로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를 구분하고, 순행적 유음화에 복합

13 순행과 역행의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 교재는 <미>밖에 없다.

14 일반적으로 유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ㄹ’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하지만 ‘ㄹ+자음’의 구조로 된 어간 말 자음군 뒤에 ‘ㄴ’이 오면 자음군 단순화 규칙이 적용된 후 유음화가 일어난다. 물론 ‘끓는[궁는], 읽는[잉는]’의 경우처럼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날 때 ‘ㄹ’이 탈락하는 경우에는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15 현재 표준 발음법 규정에도 ‘ㄹ’과 ‘ㄴ’의 연쇄가 일어날 때 유음화로 발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 조항에 ‘의견란[의견난], 생산량[생산냥]’의 경우 ‘ㄹ’이 ‘ㄴ’으로 발음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어뿐만 아니라 용언 활용형의 유음화도 다양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역행적 유음화 중 비음화로 실현되는 경우도 본문에 직접 다루기 어렵다면 보충 자료를 통해서라도 예시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4) 경음화

경음화는 평장애음이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경음화 현상은 4개 교과서 중 <비>와 <미>에서만 다루고 있다.

(7)

ㄱ. <비>: 욕구, 특수, 국밥

ㄴ. <미>: 달지, 작다, 잡고, 감다, 신지, 발달, 올 사람

<비>는 음절 말 평파열음 뒤에서 적용되는 경음화만을 예시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데 모두 명사형이다.¹⁶ <미>는 용언의 음절 말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와, 용언의 어간 말에 위치한 비음 뒤에서 적용되는 경음화, 한자어 내부의 ‘ㄹ’ 뒤의 경음화, 관형사형 어미 ‘-을’ 뒤의 경음화를 예시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¹⁷ 국어에서 경음화 현상은 그 적용 환경이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국수[국쑤], 입다[입따] 등)와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감고[감꼬], 안다[안따] 등), 관형형 어미 ‘-을’ 뒤의 경음화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경음화 현상의 예시 자료는 비음 뒤의 경음화와 음절 말 평파열

16 물론 ‘국밥’의 경우는 합성명사이다.

17 <미>는 보충 부분에 몇 가지 유형의 경음화를 언급하며 한자어 내부 ‘ㄹ’ 뒤 경음화와 관형사형 어미 ‘-을’ 뒤의 경음화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환경에서 나타나는 경음화는 필수적인 현상이 아니다. 즉, ‘발견, 발본, 발굴’과 같이 [-설정성] 자질을 갖는 자음이 올 경우에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만날 시간, 부를 국가’ 등의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나타나는 경음화는 항상 적용되는 현상이 아니다. 이러한 경음화의 수의성에 대해서는 향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음 뒤의 경음화, 관형형 어미 뒤의 경음화를 제시하되 음절 말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는 명사형과 용언 어간형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5)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비구개음 ‘ㄷ, ㅌ’이 ‘이’나 ‘y’ 앞에서 경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 구개음화 현상은 4개 교과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데 제시된 예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⁸

(8)

- ㄱ. <지>: 해돋이, 굳이, 발이, 솔이, 닫히다, 붙이다, 받히다, 맏이
- ㄴ. <천>: 해돋이, 같이, 맏이, 곧이, 붙이다, 굳이, 발이, 디나다>지나다, 티다>치다
- ㄷ. <비>: 같이, 굳이
- ㄹ. <미>: 같이, 굳이, 곧이 (듣다), 미닫이, 굳히다, 닫히다, 묻히다, 디나다>지나다

먼저 <비>는 어간에 접미사가 붙어 구개음화가 적용되는 예시(같이, 굳이) 2개만 제시하고 있다. <지>는 접미사 결합형(해돋이, 굳이, 맏이, 닫히다, 붙이다, 받히다)과 명사에 조사가 붙은 곡용형(발이, 솔이) 8개를 예시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¹⁹ <천>은 접미사 결합형(해돋이, 같이, 맏이, 곧이, 굳이, 붙이다)과 곡용형(발이), 어간 내부에서 일어난 통시적 구개음화의 예시(디나다)지나다, 티다>치다 9개를 제시하고 있다. <미>는 접미사 결합형(같이, 굳이, 곧이(듣다), 미닫이, 굳히다, 닫히다, 묻히다)과 통시적 예시(디나다)지나다 8개를 제시하고 있다. <천>과 <미>에서 특이한 것은 어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통

18 구개음화는 비구개음이 전설고모음 ‘i, y’ 앞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뀌는 현상인데, 적용을 받는 앞의 자음의 종류에 따라 ‘ㄷ’, ‘ㄱ’, ‘ㅎ’ 구개음화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ㄱ’과 ‘ㅎ’은 방언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학교문법에서 굳이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19 ‘해돋이, 굳이, 맏이’는 용언 어간 뒤에 명사화·부사화 접미사 ‘이’가 붙은 형태이고, ‘닫히다, 붙이다, 받히다’는 동사 어간에 피·사동 접미사 ‘이, 히’가 붙은 형태이다.

시적 구개음화를 예시 자료로 제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시적 구개음화가 적용되는 환경은 형식 형태소가 결합된 형태소 경계이다. 따라서 어간에 명사화 접미사나 부사화 접미사 ‘이’가 붙은 형태, 동사 어간에 피·사동 접미사 ‘이, 히’가 붙은 형태, 명사에 주격 조사 ‘이’가 붙은 형태만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²⁰

6) ‘ㅣ’ 모음 역행동화

‘ㅣ’ 모음 역행동화는 후설모음이 뒤에 오는 전설 고모음 ‘i, j’에 동화되어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²¹ ‘ㅣ’모음 역행동화는 4개 교과서 중 <지>와 <비>에서만 다루고 있는데 제시된 예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ㄱ. <지>: 아기, 어미, 고기, 죽이다

ㄴ. <비>: 아버, 어미

먼저 <비>는 명사형(아버, 어미) 2개의 예시 자료만 제시하고 있고, <지>는 명사형(아기, 어미, 고기)과 용언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은 활용형(죽이다) 등 총 4개의 예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국어에서 ‘ㅣ’를 제외한 전설 모음은 ‘ㅐ, ㅑ, ㅓ, ㅕ’ 이므로 <지>는 모든 전설모음의 예를 다 제시하고

20 물론 어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통시적 구개음화도 다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어간 내부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난 ‘똥다>좋다, 텃지>천지’의 경우나 현대 국어의 ‘마되>마디, 건되다>건디다’와 같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통시적인 설명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예들은 이미 하나의 단어로 완전히 굳어져 있으므로 형태소 경계의 환경만 잘 이해하면 공시적 구개음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1 ‘ㅣ’ 모음 역행동화의 가장 특이한 점은 모음동화 현상이지만 모음과 모음 사이에 반드시 [-설정성]의 개재자음이 있어야 하고 어간 내부 또는 피·사동 접미사의 결합 환경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설정성] 자음이 개재한 ‘아니, 바지’나, 용언 어간에 명사파생 접미사가 결합된 ‘먹이, 높이’의 경우는 ‘ㅣ’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있고, 또한 어간 내부와 피·사동 접미사의 결합이라는 적용 환경도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²²

2. 탈락

1)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 말에 자음이 두 개 올 때 이들 중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자음군 단순화는 4개 교과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데 제시된 예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ㄱ. <지>: 닭, 삶, 낫, 여덟, 값, 외곶, 맑다, 젊다, 읊다, 앓다, 핏다

ㄴ. <친>: 낫, 낯다, 밟다, 값, 여덟, 외곶, 앓고, 맑지, 핏고, 읊습니다

ㄷ. <비>: 삶

ㄹ. <미>: 낫, 흙, 삶, 밟고, 읊다, 앓지, 낯다/낯죽하다/낯등글다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의 끝소리 되기와 함께 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음운 현상으로 모음 연쇄의 환경이 아니면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자음군 단순화 현상은 명사, 곡용형, 활용형의 환경보다는 자음군의 종류에 따라 어떤 자음이 탈락되는지 결정된다. 자음군의 종류에 따라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ㄱ. 'ㅎ'계 자음군: 낯, 𐄂 - 앓, 앓 ('ㅎ' 탈락)

22 그런데 'ㅣ'모음 역행동화 현상은 공식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고 음운 변동이 적용된 출력형들이 표준어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방언에 따라 적용 환경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문법에서 다룰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ㄴ, 비음계 자음군: ㄴ, ㄹ - 앓, 삶 (비음 유지)

ㄷ, ‘ㄹ’계 자음군:

ㄹ, ㄴ, ㄹ - 넓, 외곶, 핥 (‘ㄹ’ 유지) cf) 뱉

ㄷ - 읊 (‘ㄹ’ 탈락)

ㄷ - 맑 (전설음 앞에서 ‘ㄹ’ 탈락, 연구개음 앞에서 ‘ㄹ’ 유지)

ㄷ, 폐쇄음계 자음군: ㄱ, ㅁ - 낫, 값 (폐쇄음 유지)

먼저 <비>는 다른 음운 현상처럼 ‘자음군 단순화’를 따로 떼어 설명하지 않고 활동부분에 탈락 현상의 예시로 비음계 자음군 ‘ㄹ’ ‘삶’ 1개만을 제시하고 있다.²³ <지>는 비음계 자음군(삶, 젊다, 앓다), ‘ㄹ’계 자음군(여덟, 외곶, 핥다, 읊다, 닭, 맑다), 폐쇄음계 자음군(낫, 값) 등 총 11개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ㄹ’계 자음군 중 어간 말 탈락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뱉’이 빠져 있다. <천>은 비음계 자음군(앓고), ‘ㄹ’계 자음군(넓다, 뱉다, 여덟, 외곶, 핥고, 맑다), 폐쇄음계 자음군(낫, 값, 없습니다) 등 총 10개의 예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비음계의 ‘ㄹ’과 ‘ㄹ’계의 ‘ㄷ’이 예시에서 빠져 있다. <미>는 비음계 자음군(삶, 앓지), ‘ㄹ’계 자음군(맑고, 넓다/넓죽하다/넓둥글다, 흙), 폐쇄음계 자음군(낫, 없다) 등 총 9개의 예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ㄹ’계의 ‘ㄴ, ㄹ, ㄷ’이 각각 빠져 있다. <미>에서 특이한 것은 표준 발음법에서 소리가 다르게 나타나는 ‘넓다/넓죽하다/넓둥글다’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음군 단순화는 적용 환경보다는 자음군의 종류에 따라 실현되는 현상이므로 예외적인 ‘뱉’과 ‘맑’을 포함하여 다양한 자음군의 예시 자료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3 이런 이유에서인지 김봉국(2014)에서는 <독서와 문법> 교과서 분석 자료에 <비>에서 ‘자음군 단순화’를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 후음 탈락

후음 탈락은 모음과 모음 사이, 공명음과 모음 사이에서 후음 ‘ㅎ’이 탈락하는 음운 현상이다. 후음 탈락은 4개 교과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데 제시된 예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ㄱ. <지>: (그렇다: 그러니, 그럴, 그러면, 그러오), 낳은, 많아, 싫어도 (좋다: 좋으니, 좋은, 좋아)

ㄴ. <천>: 좋으면, 귀찮으니, 많으면, 좋아, 부형)부영이, 빈혀)비녀, 싸호다)싸우다

ㄷ. <비>: 보호, 안전하게

ㄹ. <미>: 좋은, 놓으니, 많아서, 막다히)막다이)막대, 가히)가이)개, (그렇다: 그러니, 그럴, 그러면, 그러오)

<비>는 모음과 모음 사이(보호), 공명음과 모음 사이(안전하게)에서 나타나는 두 개의 예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²⁴

<지>는 ‘ㅎ’ 발음 용언 어간에 모음 어미가 결합된 ‘그러니, 그럴, 그러면, 그러오, 낳은, 많아, 싫어도, 좋으니, 좋은, 좋아’ 등의 예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지>에서는 ‘ㅎ’탈락을 “용언 어간 말 자음 ‘ㅎ’이 ‘ㄴ’이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⁵ 이 설명에 따르면 예시 자료 ‘그러니’의 경우 용언 어간 ‘그렇-’에 연결어미 ‘-니’가 결합되고 ‘ㄴ’ 앞에서 용언 어간 말 자음 ‘ㅎ’이 탈락하여 ‘그러니’가 도출된 것으로, 적절한 예시라 하겠다. 그런데 ‘그러면’의 경우 동일한 설명을 적용해 보면, 용언 어간 ‘그렇-’에 연결어미 ‘-면’이 결합되고 ‘ㅁ’ 앞에서 어간 말 자음 ‘ㅎ’이 탈락하여 ‘그러면’이 도출된 것으로 설명된다. 이럴 경우 ‘ㄴ’이나

24 표준 발음법 제12항을 살펴보면 한자어나 복합어의 경우 ‘ㅎ’을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5 <지>에서 제시한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모음 앞에서 어간 말 자음 ‘ㅎ’이 탈락한다는 교과서의 설명과는 맞지 않는 예시 자료가 된다. 따라서 ‘그러니’와 ‘그러면’의 경우는 ‘ 좋으니’와 같이 ‘그렇+으니’, ‘그렇+으면’과 같이 모음 앞에서 ‘ㅎ’이 탈락하고 ‘그러+으니’에서 ‘그러니’가 도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지>의 예시들은 일반적인 ‘ㅎ’ 탈락의 예로는 적절하나, 교과서 내의 설명에 의한 예시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²⁶

<미>는 ‘ㅎ’ 탈락을 공시적 음운 현상과 통시적 음운 현상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공시적 음운 현상은 ‘ㅎ’ 발음 용언 어간에 모음 어미가 결합된 ‘ 좋은, 놓으니, 그러니, 그럴, 그러면, 그러오’와 공명음과 모음 사이에 ‘ㅎ’이 탈락한 ‘ 많아서’를 제시하고, 통시적 음운 현상은 ‘ 막다히’막다이> 막대, 가히>가이>개’를 제시하고 있다. <천>은 모음과 모음 사이(좋으면, 좋아), 공명음과 모음 사이(귀찮으니, 얌으면)를 제시하고 통시적인 ‘ㅎ’탈락(부형>부영이, 빈혀>비너, 싸호다>싸우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통시적 음운 현상을 예로 제시한 <지>와 <천>의 자료를 보면, ‘막대’와 ‘개’는 ‘ㅎ’ 탈락이 적용된 것은 맞지만 ‘ㅎ’ 탈락 후 다시 모음 ‘아’와 ‘이’가 ‘애’로 모음 축약을 일으킨다. 또한 ‘부영이’는 ‘부영’ 뒤에 ‘이’가 붙게 된 이유, ‘싸우다’는 ‘오’가 ‘우’로 바뀐 이유를 또 학습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ㅎ’ 탈락의 경우 ‘ㅎ’ 어간 발음을 갖는 용언에 모음이나 공명음이 결합된 예시 자료만 제시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3) ‘으’ 탈락

‘으’ 탈락은 모음 ‘으’가 탈락하는 현상이다. ‘으’ 탈락은 <지>, <미> 두 개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제시된 예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6 학교 문법에서 연결어미 ‘-니’의 기저형을 ‘-으니’가 아닌 ‘-니’로 본다는 관점에서 교과서의 예시를 설명한 것 같으나 다른 예와의 일관성을 생각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3)

ㄱ. <지>: (끄다: 꺼, 꺾다), (쓰다: 쓰니, 쓴, 써)

ㄴ. <미>: 커서, 써라, 담가도, (뜨다: 떠, 뗏다)

<미>는 모음 ‘으’로 끝나는 용언에 어미 ‘-아/어’가 결합한(커서, 써라, 담가도, 떠, 뗏다) 5개의 예시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지>는 모음 ‘으’로 끝나는 용언에 ‘-아/어’가 결합한(꺼, 꺾다, 써) 3개와 어미의 ‘으’가 탈락한 ‘쓰니, 쓴’을 예시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으’ 탈락은 환경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용언 어간의 ‘으’가 어미 ‘-아/어’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크+어서 → 커서, 따르 + 아서 → 따라서 등), 유음이나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어미의 ‘으’가 탈락하는 경우(알 + 으면 → 알면, 배우 + 으니 → 배우니 등), 유음이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조사 ‘-으로’의 ‘으’가 탈락하는 경우(칼 + 으로 → 칼로, 바다 + 으로 → 바다로 등)이다. 그런데 모음 ‘으’로 끝나는 용언 뒤에 연결 어미의 ‘으’가 탈락하는 경우(쓰 + 으니 → 쓰니)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조사 ‘으로’의 ‘으’가 탈락하는 경우(바다 + 으로 → 바다로)는 ‘-으니/니, -으로/로’와 같이 받침 유무에 따른 교체, 즉 이형태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는 ‘쓰다’에 과거형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된 ‘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받침이 있는 용언에는 ‘-은’이 결합(먹은 밥, 읽은 책)되고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에는 ‘ㄴ’이 결합(간 사람, 버린 책)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으’ 탈락의 경우 용언의 어간 말 ‘으’가 어미 ‘-아/어’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와 유음으로 끝나는 용언이나 체언 뒤에서 ‘으’가 탈락하는 경우만 제시해도 충분하다.²⁷

27 유음으로 끝나는 용언이나 체언 뒤에서의 ‘으’ 탈락의 경우도 ‘ㄹ’ 받침의 예외, 즉 불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ㄹ’ 받침 뒤에 ‘-으니’, ‘-으로’가 결합되었다가 ‘으’가 탈락한 것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바로 ‘니’나 ‘로’가 결합된 것인지 해석할지 선택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나 전자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4) 유음 탈락

유음 탈락은 어간 말에 위치한 ‘ㄹ’이 ‘ㄴ, ㄷ’ 등과 같은 [+설정성] 자음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다. 유음 탈락은 4개 교과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데, 제시된 예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 ㄱ. <지>: 따님(*달님, *별님), (놀다: 노니, 논, 놀니다, 노시다, 노오), (멀다: 머니, 먼, 멀니다), (등글다: 등그니, 등근, 등굽니다, 등그시다, 등그오),
- ㄴ. <천>: 마소, 바느질, 소나무, 따님, 다달이
- ㄷ. <비>: 사는
- ㄹ. <미>: (갈다: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비>는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사는) 1개만을 예시 자료로 제시하고 있고, <미>와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 5개를 제시하고 있다. <천>은 활용형의 예는 없고 복합어(마소, 바느질, 소나무, 따님, 다달이) 5개를 제시하고 있다. <지>는 활용형의 예시 자료 13개를 제시하고 있으며 본문에는 없지만 참고란에 파생어(따님)와 같은 구성이지만 유음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 예(달님, 별님)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²⁸ 유음 탈락은 복합어를 형성하거나 용언 어간 뒤에 [설정성] 자음이 결합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두 가지 환경을 모두 보여 줄 수 있도록 예시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8 부록에는 과거에 유음 탈락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설명과 함께 ‘아다 마다>알다 마다, 아 니 노지>아니 놀지’도 제시되어 있다.

3. 첨가

1) ‘ㄴ’ 첨가

‘ㄴ’ 첨가는 복합어 구성에서 선행 요소가 자음으로 끝나고 후행 요소가 ‘이’나 ‘j’로 시작될 때 적용되는 현상이다. ‘ㄴ’ 첨가는 <비>, <미> 2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예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⁹

(15)

ㄱ. <비>: 사당역, 맨입

ㄴ. <미>: 맨입, 늦여름, 신여성

<비>는 합성어와 파생어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고 있고, <미>는 파생어 2개와 합성어 1개를 제시하고 있다. ‘ㄴ’ 첨가는 복합어 구성에만 적용되므로 두 교과서의 예들은 적절하다 하겠다.³⁰

2) 반모음 첨가

반모음 첨가는 활음인 ‘y, w’가 첨가되는 현상이다. 활음 첨가는 <미>에만 제시되어 있는데, 예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미>: 피어도, 좋아도, 학교에, 바다에서

<미>는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뒤에 ‘-아/어’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된 자료 2개(피어도, 조와도)와 체언 어간 뒤에 처격조사 ‘-에’가 결합된 예시

29 <지>의 경우 ‘ㄴ’ 첨가를 따로 분리하여 기술하지는 않고 사잇소리 현상을 기술하면서 ‘ㄴ’ 첨가 현상을 다루고 있다.

30 복합어 구성 이외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일어나는데(그런 여자 → 그런 녀자, 그럴 일 이 → 그럴 리리 등) 발화 속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예시로 다룰 필요는 없다.

자료 2개(학교예, 바다에서)를 제시하고 있다. 용언형과 활용형을 모두 제시한 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된다.³¹⁾

4. 축약

1) 거센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유기음화)는 평파열음과 평파찰음이 ‘ㅎ’과 결합하여 거센소리(유기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거센소리되기는 4개 교과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데, 제시된 예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

ㄱ. <지>: 좋고/좋다/좋지, 먹히다, 닫히다, 잡히다, 각하, 고집하다

ㄴ. <천>: 만형, 좁히다, 놓고, 착하다, 찻해, 국화, 답답하다

ㄷ. <비>: 박하

ㄹ. <미>: 낳고, 얹던, 법학

먼저 <비>는 거센소리되기를 따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고 4가지의 음운 변동 유형 중 하나인 ‘축약(A + B → C)’의 예로 ‘ㄱ+ㅎ’의 ‘박하’ 하나만을 제시하고 있다. <미>는 ‘ㄱ, ㄷ, ㅂ + ㅎ’의 예시 자료 각 한 개씩을 제시하고 있으나 ‘ㅅ+ㅎ’의 예는 없으며, <천>은 8개의 예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미>와 마찬가지로 ‘ㅅ+ㅎ’의 예는 없다. <지>는 ‘ㄱ, ㄷ, ㅂ, ㅅ+ㅎ’의 예가 다 제시되어 있으나 ‘놓고’ 하나를 제외하면 모두 ‘ㅎ’이 평장애음 뒤에 위치한 예시만을 제시하고 있다. 거센소리되기는 형태소 내부이든 경계이든, ‘ㅎ’의 위치가 앞이든 뒤이든 유기음 계열이 존재하는 평장애음에 ‘ㅎ’가 결

31 기술문법에서 활음 삽입은 체언 어간 뒤에 호격조사 ‘아’가 결합될 때만 필수적으로 일어나고 나머지 환경에서는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호격조사 ‘아’와 ‘야’는 음운론적 교체로도 설명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합되면 적용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거센소리되기의 경우 ‘ㄱ, ㄷ, ㅌ, ㅈ + ㅎ’과 ‘ㅎ+ㄱ, ㄷ, ㅈ’의 예시를 모두 제시하고, ‘꽃 한 송이[꼇한송이→꼬탄송이]’와 같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적용되는 예시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2) 모음 축약

모음 축약은 모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다른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여 다른 단모음으로 바뀌는 단모음 축약과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바뀌는 이중모음 축약이 있다. 모음 축약은 4개 교과서 중 <미>에서만 다루고 있는데 제시된 예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 <미>: 그러, 먹여, 맞춰

<미>에서 제시한 예시 자료 3개는 모두 모음 축약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기술문법에서의 모음 축약은 ‘아이>애(a+i → e)’와 같은 단모음 축약이나 ‘며느리>메느리(yə → e)’와 같은 이중모음 축약을 의미하고, <미>에서 제시한 예시 자료 ‘그리 + 어 → 그러’는 ‘이’가 활음 ‘y’로 바뀐 활음화로 음운의 변동 유형 중 ‘대치’ 현상에 포함된다. 물론 <미>에서는 이중모음을 ‘반모음+단모음’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음운으로 본다는 설명과 함께 위의 예들을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미>에서 제시한 ‘활음 삽입’과 배치되는 설명이다. 즉, <미>에서 ‘활음 삽입’을 설명하면서 ‘피어도 → 피여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미>의 설명대로 이중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본다면 ‘/pi+ə+do/ → [pi+yə+do]’가 되는 것은 ‘y’ 삽입이 아니라 음소 ‘/ə/’가 ‘/yə/’로 바뀐 대치 현상으로 봐야 하므로 <미>에서 제시한 모음 축약의 예시 자료들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미>의 ‘모음 축약’은 ‘대치’의 활음화로 분류하거나, <지>와 <천>의 음절축약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5. 기타

1) 두음 법칙

두음 법칙은 ‘ㄹ’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ㄱ, ㅋ, ㆁ, ㄷ, ㅌ, ㄴ, ㄷ, ㄹ, ㄷ, ㄹ’ 앞에서 ‘ㄴ’으로 변하는 현상이다.³² 두음 법칙은 4개 교과서 중 <천>에서만 ‘대치’로 다루고 있는데 <천>에서 제시한 정의와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천>: 로인, 녀자, 력사

기술문법에서 두음 법칙은 “‘ㄹ’은 어두에 올 수 없다”는 음운론적 단어의 구성과 관련된 국어의 단어 구조 제약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문법에서 단어 구조 제약으로 나타나는 두음 법칙의 실제 양상을 ‘ㄹ’ → ‘ㄴ’의 대치와 ‘ㄴ’ → ‘∅’의 탈락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두음 법칙은 주로 한자어에서 적용되며 차용어, 특히 최근 많이 들어오는 외국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천>에 제시된 자료 외에 적용되지 않는 예들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사잇소리 현상

사잇소리 현상은 합성어 구성에서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거나 ‘ㄴ’ 또는 ‘ㄴㄴ’이 첨가되는 현상이다. 사잇소리 현상은 4개 교과서 중 <지>와 <천> 두 개 교과서에서 ‘첨가’의 유형으로 다루고 있는데 제시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

ㄱ. <지>: 촛불, 잇몸, 밤길, 집안일, 뱃사공, 논둑, 돌담, 등불, 빨랫줄, 낫날, 물약, 가윗일, 나뭇잎

32 <천>에서 제시한 정의를 인용한다.

ㄴ. <천>: 길가, 잇몸, 촌사람, 등불, 촛불, 뱃사공, 밤길, 논일, 콩엿, 물약, 숨이불, 나뭇잎, 콧날, 빗물, 초점, 내과, 대가

<지>는 합성어 구성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예시 자료(밤길, 논둑, 돌담, 등불) 4개와, 사이시옷이 붙은 예시(촛불, 잇몸, 뱃사공, 빨랫줄) 4개, ‘ㄴ’이 첨가된 예시(집안일, 콧날, 물약) 3개, ‘ㄴㄴ’이 첨가된 (가윗일, 나뭇잎) 2개 등 총 13개를 제시하고 있다. <천>은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예시(길가, 촌사람, 등불, 밤길, 초점, 내과, 대가) 7개, 사이시옷이 붙은 예시(잇몸, 촛불, 뱃사공, 콧날, 빗물) 5개, ‘ㄴ’이 첨가된 예시(논일, 콩엿, 물약, 숨이불) 4개, ‘ㄴㄴ’이 첨가된 예시(나뭇잎) 1개 등 총 17개를 예시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위의 자료들을 보면 두 교과서에서 사잇소리 현상의 예들을 모두 풍부하게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ㄴ’ 첨가의 예들(집안일[지반닐], 숨이불[숨니불] 등)을 제외하면, 사잇소리 현상을 ‘첨가’의 유형에 포함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먼저 ‘밤길[밤길], 논둑[논뚝]’ 류의 예들은 사이시옷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고 휴지가 성립되므로 ‘대치’의 경음화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 ‘잇몸[인뭉], 콧날[곤날]’ 류의 예들은 ‘ㄴ’이 첨가되어 소리가 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에 ‘ㅅ’이 첨가된 ‘잇’이 음절 말 끝소리 되기 현상을 겪어 [인]이 된 후 ‘뭉’의 어두 비음 ‘ㅁ’에 동화되어 ‘ㄴ’으로 대치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³³ 따라서 사잇소리 현상을 다른 음운 현상들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시 자료들을 ‘첨가’의 유형 하나로 묶기보다는 ‘대치’와 ‘첨가’로 나누고, 다시 ‘첨가’를 ‘ㄴ’ 첨가와 ‘ㅅ’ 첨가로 구분하는 것이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³⁴

33 ‘나뭇잎[나문닙]’의 경우도 ‘ㄴ’과 ‘ㅅ’ 삽입 후 ‘ㅅ’의 음절 말 끝소리 되기 ‘ㄷ’, ‘ㄷ’의 비음화 ‘ㄴ’의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ㄴㄴ’ 삽입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4 이러한 이유로 기술문법에서는 사잇소리 현상을 음운 현상으로 다루지 않고 발음 규칙으

3) ‘ㅅ’ 탈락과 ‘ㄷ’ 탈락

‘ㅅ’ 탈락은 용언 어간 말 ‘ㅅ’이 모음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것이고, ‘ㄷ’ 탈락은 용언어간 ‘ㄷ’이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ㅅ’ 탈락은 <지>와 <미>에서, ‘ㄷ’ 탈락은 <미>에서만 다루고 있는데 예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1)

ㄱ. <지>: (긋다: 그으니, 그어, 그었다), (짓다: 지어, 지으니, 지었다), (잇다: 이으니, 잇는, 잇습니다)

ㄴ. <미>: (긋다: 그어, 그으니, 그었다)

ㄷ. <미>: (푸다: 펴, 뻘다)

<지>에서는 ‘긋다, 짓다, 잇다’의 활용형을, <미>에서는 ‘긋다’의 활용형을 ‘ㅅ’ 탈락의 예시 자료로 들고 있다. 그런데 ‘ㅅ’ 탈락은 규칙활용을 하는 ‘ㅎ’ 탈락이나 ‘ㄹ’ 탈락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즉, 동일한 환경의 ‘벗다, 씻다’는 규칙활용을 하기 때문에 학교문법에서 불규칙활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에서 다루고 있는 ‘ㄷ’ 탈락 또한 ‘푸다’ 하나만이 적용되는 불규칙활용이다. 따라서 ‘ㅅ’ 탈락과 ‘ㄷ’ 탈락은 음운의 변동에 포함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4) 음절 축약

음절 축약은 일반적으로 3음절이 2음절로, 2음절이 1음절로 음절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음절 축약은 <지>와 <천>에서 다루고 있는데 예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로 설명하고 있다. 즉, ‘ㄴㄴ’ 삽입은 도출형을 보고 명명한 것일 뿐이지 음운 변동의 환경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22)

ㄱ. <지>: 와서, 뒀다, 가져, 띄다, 돼

ㄴ. <천>: 와, 뒤, 기어-)겨, 봐, 띄다, 썩어/썩여(썩+이+어)

먼저 <지>는 음절 축약을 “앞 뒤 형태소가 만날 때 앞뒤 형태소의 두 음절이 하나의 음절로 줄어드는데 이때 어느 하나의 모음은 반모음으로 바뀐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천>은 “‘ㅣ’와 ‘ㅈ’가 만나서 ‘ㅈ’로 바뀌거나, ‘ㄴ, ㄷ’가 ‘ㄴ, ㅈ’ 앞에서 ‘ㄴ, ㅈ’로 바뀌는 현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음절의 수가 줄어든다는 면에서는 음절 축약이라는 용어가 성립될 수 있으나 ‘음절’의 개념이 음운의 변동에서 성립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즉, 위의 예들을 음운의 단위로 분석하게 되면 단모음이 활음으로 바뀐 ‘대치’의 ‘활음화’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이는 <지>의 정의에서 언급한 “하나의 모음은 반모음으로 바뀐다.”라는 설명에도 부합한다.

IV.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현행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음운의 변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각 출판사별로 교과서에 제시된 예시 자료 및 그에 따른 설명 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고를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먼저 『독서와 문법 I』 교과서에 제시된 음운 현상의 유형은 교과서별로 큰 차이가 없고, 국어 음운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된 유형과 유사하다. 하지만 ‘두음 법칙, 사잇소리 현상, ㅅ 탈락, 음절축약’은 유형 분류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신중한 분류와 기술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음운 현상은 변동을 겪는 음소(입력부), 변동의 결과(출력부), 변동의 환경

이라는 세 요소로 구성되는데, 각 출판사의 예시 자료들은 변동의 환경보다는 입력부와 출력부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예시 자료의 수도 출판사별로 편차가 있는데, 학생들이 음운의 변동을 이해의 차원에서 받아들일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운 현상에 적용되는 환경을 정확히 기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예시 자료를 가능한 한도 내에서 다양하게 보여 줘야 할 것이다.

본고는 현행 학교문법 교과서가 국정이 아니라 검인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그것이 잘 부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또한 다양한 문법 지식을 많은 실례를 통해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현재 학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다소 이상적인 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고는 교과서의 본문을 비롯하여 심화·연구 부분, 연습문제 부분 등에 각각 다른 예시 자료들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다양한 예들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다양한 예시 자료들을 어느 부분에 어느 순서로 제시하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면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15. 7. 31. 투고되었으며, 2015. 8. 4. 심사가 시작되어 2015. 8. 20.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자료

- 박영목 외 5인(2012), 『독서와 문법 I』, 천재교육.
윤여탁 외 8인(2012), 『독서와 문법 I』, 미래엔.
이남호 외 9인(2012), 『독서와 문법 I』, 비상교육.
이삼형 외 8인(2012), 『독서와 문법 I』, 지학사.

논저

- 김봉국(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 속의 음운 변동 내용에 대한 검토」,
『우리말연구』 38, 우리말학회, pp. 26-44.
김종규(2003), 「히아투스과 음절」, 『한국문화』 3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pp. 1-22.
박덕유(2007), 「효율적인 음운교육의 학습방안 연구」, 『새국어교육』 77, 한국국어교육학회, pp.
99-120.
배주채(2013), 『한국어의 발음(개정판)』, 삼경문화사.
신승용(2006), 「‘문법’ 교과서 내용 기술상의 몇 문제와 개성 방안」, 『어문연구』 34-4,
한국어문연구교육회, pp. 401-426.
신지영(2006), 「국어 음운론 지식의 교과서 수용 실태와 문제점: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33, 한국어문학회, pp. 1-36.
신호철(2008), 「‘문법’ 교과서에서의 ‘말소리’ 단원의 양상과 문제」, 『국어국문학』 150,
국어국문학회, pp. 53-78.
이관규(2002), 『개정판 학교문법론』, 월인.
이래호(2011), 「고등학교 국어 검정 교과서의 ‘음운 규칙’ 관련 기술에 대한 고찰」,
『한국언어문학』 77, 한국언어문학회, pp. 355-385.
이상신(2009), 「학교 문법의 ‘축약(縮約)’ 및 어문 규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53,
국어국문학회, pp. 417-439.
_____(2014), 「국어 음운론에서의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 『국어학』 69, 국어학회, pp. 207-
231.
이진호(2005),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_____(2009), 『국어 음운 교육 변천사』, 박이정.
이화진(2003), 「움라우트와 모음축약의 상관성」,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화진 · 하호빈(2012), 「음절 구조와 음소 배열 제약을 고려한 한국어 자음 교육」, 『문법교육』
16, 한국문법교육학회, pp. 273-295.
하호빈(2008), 「음절 구조와 공명도를 통한 국어 자음 동화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교과서의 ‘음운 변동’ 기술 양상과 문제점 — 설명에 제시된 예시 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진

본고는 현행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음운 변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각 출판사별로 교과서에 제시된 예시 자료와 그에 따른 설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교과서에 제시된 음운 현상의 유형 분류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기술문법에서 제시한 방식과 유사하나 ‘두음 법칙, 사잇소리 현상, ㅅ 탈락, 음절축약’은 유형 분류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신중한 분류와 기술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예시 자료를 살펴보면, 예시들이 변동의 환경보다는 입력부와 출력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음운의 변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운 현상에 적용되는 환경을 정확히 기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하고 다양한 예시 자료를 함께 보여 줘야 할 것이다.

핵심어 국어 문법 교과서, 음운 현상, 음운론적 환경, 예시 자료, 음운 현상 유형 분류

Some Issues in the Description of ‘Phonological
Fluctuation’ in High School Textbook
Reading and Grammar I

—Focusing on Examples for the Explanation

Lee Hwajin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scription of ‘phonological fluctuation’ and to confirm adequacy of examples in high school textbook. The explanation of current Korean grammar textbook is focused on synchronic phonological phenomena. However various type of phonological environments that represent synchronic phonological phenomena are not proposed apparently. In consequence, the learners do not accept the principle of phonological phenomena in simple way.

Firstly, I analyzed the various type of phonological fluctuations are presented in the textbook. Despite the adequacy in general description of the phonological fluctuations, there are issues in the classification of some phonological fluctuations - initial law, ‘Sait-sori’ phenomena, syllable coalescence, and S-deletion.

Secondly, I confirmed the examples for the explanation are presented in the each section of textbook. There are only few examples that provide the insufficient explanation in the textbook. Therefore it needs to describe the phonological fluctuations with more consistent and diverse examples for the learners.

KEYWORDS Korean grammar textbook, phonological fluctuation, phonological environment, examples for the explanation, classification of phonological fluctuations